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Vung Zam Cing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1:10-11; Luke 2:6-7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Hiddenness of Christ"	Pastor Hymn	
*	 116	Congregation	Benediction
*		Pastor	Lord's Prayer Song
*		Congregation	

(* Please stand)

“Hiddenness of Christ”
John 1:10-11; Luke 2:6-7

So much of Christmas in the modern days is shrouded in commercialism or sentimentalism. The reality is that we have a difficult time recognizing Jesus in the very season which is associated with his name, Immanuel ("God with us"). As a matter of fact, even in the first Christmas, when Jesus was born in the world, he was recognized by only a handful of people (such as Mary, Joseph, shepherds, Magi, Simeon, and Anna). The rest of the population in Palestine and for that matter, the whole world, was completely oblivious to his coming.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Jn. 1:10-11). It seems as though Jesus is hidden to the world in general, and revealed only to those who would have the special grace to recognize him. The way Jesus first came into this world clearly shows the nature of his hiddenness.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e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Lk. 2:6-7). So how is Jesus hidden? (1) He is hidden in the human and natural. He came in a most natural human form as a baby. (2) He is hidden in the common and ordinary. He was born to a couple who were simple peasants. (3) He is hidden in the lowly and despised. He was born in a stable, and laid in a manger (feeding trough of animals). Jesus is hidden like a treasure box buried in the ground. We must have the spiritual eyes and humble hearts to recognize him in the most natural, ordinary, and lowly conditions around us.

Announcements

-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 Please make your prayer requests known to us by submitting them in the heart shaped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We will be praying for you.
-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9:30 am (Room 104) - Leadership Discussion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 12:00 pm (Room 104) - Children's Sunday School Class (led by Jordan Dover)
 - 1:00 pm (Room 604) - Youth Bible Study (led by Ji Hyejin Ryoo)
 - 1:00 pm (Room 104) - "Christian Doctrines" (led by Jimmy Eppley)
 - 1:00 pm (Room 104) - "Christian Worship" (led by Gaichuang Panmei)
 - 1:00 pm (2nd floor) - "Christian Identity" (led by Vung Zam Cing)
 - 1:00 pm (9th floor) - Mongolian Bible Study (led by Amaraa and Dashka)
- Saturday English Class (Room 606), alternating between 12:30 pm and 6:30 pm (led by Richard Hammett and Jimmy Eppley)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III,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에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7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어린이 수요예배		오후 7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801 호
토요꿈나무영어성품스쿨	학기중 토 9:30~12:30	701 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신혼가정공동체		오후 3시20분	102 호	직분지양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가족원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황 형 유문근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임규현 김인성 천세중	교육상담목사 양세라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천 김다니엘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장재원 정대은 이진광 교수는 Gaichung Panmei, Vung Zam Cing 선 교 사 가미글루나나, 권요셉-조에스다, 김모세-아나나, 김원희(동아시아), 전광희(서아시아), 이은준-강재형(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모이, 조남배, 박진영-김지성(말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도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홍성일(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재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재희(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정남-허미선(일본), 김광경-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나영 - 오정민(캐나다), 김복희, 윤광모, 노신애, 이금선, 김명일, 김덕수(순교회), 김종일-백은비(터키노동자), 배, 현, 조, 가, 마, 마, 장, 사무엘, 레아, 난, 황, 찬다, 사우, 귀비, 하, 호라, 라비, 벨, 비애,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상모, 수레시, 수바시, 이영민, 알로조프, 비시누브도, 보디스도, 린로프, 수란조(말글라데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총회 서울 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담임목사 박 노 철
Senior Pastor P. N. Choi

Senior Pastor Park, No Cheol

“오직 그리스도로만”
("By Christ Alone")

■ 사 40:3-5

성탄절은 우리의 거룩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와 대화할 수 있도록, 여인의 몸을 빌어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 즉 신인(神人) - God-Man 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3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한 여인의 자궁에 잉태되어, 9개월을 그곳에 계셨고,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으며, 그 유아기와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와 장년기를 다 경험하셨는가 하면, 완전한 사역을 오직 존재하셨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죄를 흘려 죽여줄수록 그 죄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으나 100%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여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무런 흠도 없는 어린양으로서, 오직 하나의 목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Solut Christus, ovis Christusdomini!"의 의미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기꺼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며, 또한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사가 선지자는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들은 다 돋아어지고, 산들은 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들을 다 보습해서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낮은 자존감은 높아져야 하며, 교만한 우리의 생각들은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인생의 상처로 말미암아 굽어 있는 마음들은 곧게 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인생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누추하기 그지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계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탄은 복음이요 기쁨이요 평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합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
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개혁주의자들처럼 외쳐야 합니다.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하여, 전무후무한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